

# 맑은 하늘 선녀는 기분이 어떠니??

전주만성초등학교

1학년 4반 안보경



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은 하늘에만 사람들이 살았단다. 그럼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나는 공주 선녀야, 나의 아빠는 걱정이 있단다.

왜냐면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고, 기침을 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땅으로 내려가고, 하늘나라 사람들은 괴로운 삶을 살아야 했지.

어느 날 해님이 기침을 하며 말했지 “공장 때문에 맑은 하늘을 만들 수가 없어.”

하얀 구름이 말했지 “나도 공장 때문에 기침이 나서 맑은 하늘을 만들 수가 없어.”

해님이와, 하얀 구름이는 공장을 혼내 주기로 했어. 가 봤더니 공장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해님이가 설명을 해주고 나자 최대한 공기를 나쁘게 하지 않겠다고 했단다.

약속을 하자 맑은 하늘이 많이 생겼단다.

내 기분은 어떨까요? 좋은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좋단다. 너희들도 지구를 위해 많이 노력하렴!